

안방에 사극 열풍 부나



MBC '연인' 남궁민



KBS '고려 거란 전쟁'



KBS '혼례대첩'

병자호란이 발발한 조선시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연인', 고려와 동양 최대 국가인 거란의 전쟁을 다룬 '고려 거란 전쟁',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혼례대첩'.

다양한 설정과 시대 배경을 둔 사극 드라마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잇달아 방송돼 시청자에게 접어들어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는 지난 13일 금토 드라마 '연인' 파트2를 처음 방송했다. '연인'은 각각 10부로 이뤄진 두 파트로 제작돼 지난 8-9월 파트1 방송을 마쳤다.

병자호란이 발생한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연인'은 가상의 인물인 이장현(남궁민 분)과 유길재(안은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둔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이면서도 중심 이야기는 상상에 기반해 어떤 결말로 나아갈지 끝까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가상 사극이다.

'연인'은 특히 주연배우 남궁민의 호연에 힘입어 파트1 출발 때는 5%대였던 시청률이 마지막 방송에선 12.2%까지 치솟았다. 파트2는 첫 방송부터 7.7%의 시청률을 기록해 파트1 시작 때보다 높았다.

KBS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중순 서로 다른 무렵의 사극 두 편을 2TV에서 잇달아 선보인다. 이달 30일 첫 방송하는 월화드라마 '혼례대첩'과 내달 11일 첫 방송을 앞둔 토일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다.

'혼례대첩'은 조선시대 배경 사극의 외피를 입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역사적인 사건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이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시대적 배경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신부인 공주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가 된 비운의 부마 심정우(로운)와 한양 최고 중매쟁이자 과부 정순덕(조이현)이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유쾌하게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역사적 사실과는 별 관련이 없는 만큼 고증이 지나치게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 거란 전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 되는 정통 대하사극으로 훨씬 진중한 작품이다.

KBS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이 드라마는 2022년 5월 중영한 '태종 이방원'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정통 대하사극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2부작인 '고려 거란 전쟁'은 거란(요나라)이 10~11세기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한 여요전쟁을 배경으로 고려 황실과 총사령관 강감찬이 나라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다룬다.

과거 '태조 왕건'(2000-2002), '해신'(2004-2005), '대조영'(2006-2007), '대왕의 꿈'(2012-2013) 등 무수한 정통사극의 흥행을 이끌었던 배우 최수종이 강감찬으로 출연한다.

제작비가 '태종 이방원'보다 많은 270억 원으로 회당 제작비는 8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KBS 정통사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중전 몇몇 정통사극이 국가 간 대규모 전쟁을 수십 또는 수백 명의 군인이 싸우는 조악한 장면으로 묘사해 실감감을 안겼던 것과 달리 '고려 거란 전쟁'은 예고 영상에서 부족한 없는 규모감을 선보여 기대감을 높였다.

사극은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품이나 대사 등 세세관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가 현대극과 다른 만큼 시청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정통사극이 거의 매년 제작되고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차츰 역사적 소재가 고갈되고 기시감이 더해지면서 제작이 뜸해졌다.

2003년 '다모'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배경만 차용하는 퓨전 사극이 시청자에게 호평받은 이후로는 퓨전이나 판타지 사극 등 장르적 변주도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그나마도 침체를 겪고 있다.

올해 방송된 퓨전 사극은 자체 최고 시청률이 MBC '꽃선비 열애사' 5.0%, '조선변호사' 4.4%, tvN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봉' 시즌 2 3.7%, '정춘월담' 4.9% 등을 기록해 아직 두각을 나타낸 작품이 없다. /연합뉴스

'노벨문학상' 은포세 소설 인기 급상승

소설 '아침 그리고...' 예스24 4위...신간 '멜랑콜리아...'도 화제

부산한 산파의 움직임과 산모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노르웨이 해안가 어느 한 집에서 시작되는 출산장면으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흑여 출산 중에 아내나 아이가 잘못될 지도 모른다는 내적 독백이 한 사내의 입안에서 꿈틀거린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은포세의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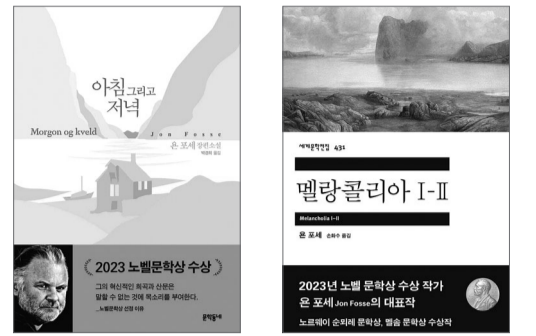
특히 수상 이후 5일간 올해 연간 판매량의 52배 가량 증가했는데 대표작 '아침 그리고 저녁'의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예스24는 '아침 그리고 저녁'은 10일 기준 소설·시·희곡 분야에서는 4위, 전자책 분야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는 '아침 그리고 저녁'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꿈꾸어왔다.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위대한 인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눈부신 이야기. 누구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두 가지 주제, 바로 삶과 죽음을 '특별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평했다.

1959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은 포세는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했으며 호르달란주에서 문예작가를 가르쳤다.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으리라' 발표 이후 '이름', '누군가를 거야'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은 포세에게는 '입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상연된 노르웨이 극작가'라는 평이 따른다. 실험적인 문체로 희곡은 물론 소설, 시, 산문 등 다양한 글쓰기를 선보였으며 작품들은 4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2007년 스웨덴 한림원 북유럽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살아 있는 100인의 천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노벨상 수상 계기로 은 포세의 또다른 대표작으로 새롭게 출간된 '멜랑콜리아 I-II'도 인기를 얻고 있다. '멜랑콜리아 I-II'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돼 10월 10일 기준 북유럽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3위에 진입했다.

예스24 관계자는 "노벨문학상 수상 도서에 대한 관심은 전 연령층 중에서 40대 여성이 25.8%로 1위를 차지했다"며 "'아침 그리고 저녁'의 구매자 1위도 40대 여성(26.0%)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예스24가 진행 중인 노벨문학상 기획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은 포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예스24 회원들의 메시지는 현재까지 총 1600여건이 모였다.

예스24는 이달 말까지 은 포세의 관심작가 알림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1000원원의 YES포인트를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톱스타= 흥행 보증수표'는 옛말

송강호·하정우 등 톱배우들 쓴맛...관객들, 주제·감독 등 취향 다변화

최근 몇 년 사이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급감한 가운데 톱배우가 주연한 영화들도 흥행에 참패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배우의 이름값을 보고 작품을 관람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라며 '스타 배우=흥행보증수표' 공식도 옛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대표 연기파 배우이자 '천만 영화'를 4편 보유한 송강호는 최근 '거미집'으로 쓴맛을 봤다.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극장가 대목인 추석 연휴 직전 개봉했으나 누적 관객 30만여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국내 흥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 이후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다. '나랏말싸미'(92만여명), '브로커'(126만여명), '비상선언'(205만여명) 등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설경구 역시 몇 년 동안 흥행과는 연이 닿지 않고 있다.

올해 기대작으로 꼽힌 이해영 감독의 '유령'(66만여명), 김용화 감독의 '더 문'(51만여명)

으로 고배를 마셨다.

하정우도 최근 두 달 사이 2편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8월 개봉한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 작전'(105만여명), 지난달 극장에 걸린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87만여명)이 손익분기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인질'(123만여명)·'교섭'(172만여명) 등에서 주연한 황정민, '장르만 로맨스'(51만여명)·'인생은 아름다워'(117만여명)에 출연한 류승룡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업계에선 관객들의 영화 선택에서 배우가 차지하는 몫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 티켓 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이 감독, 장르, 주제, 관객 평, 매체 리뷰 등 여러 요소를 골고루 따져보는 경향이 짙어진 만큼 배우가 흥행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지영 영화평론가는 "배우 혹은 감독만 보고 영화를 관람하는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작품을 까다롭게 고르는 요즘 관객들의 취향은 스타 마케팅에 기대기만 한 제작사에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연인'·'혼례대첩'·'고려거란' 다음달까지 순차 공개 흥미로운 시대·역사 배경 장점 실제 사건으로 현실감 높이고 회당 제작비 아낌없는 투자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 선사



MBC '연인' 안은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향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